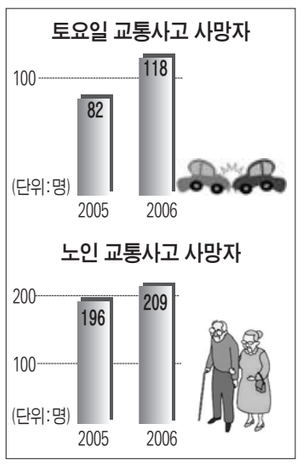
주 5일 근무·노령층 증가 따라 교통사고 추세도 급변

토요일 음주사고 사망 3배 급증



교통사고도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노령층 증가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표〉

노인 사망도 크게 늘어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1만8천6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70명이 숨지고 3만79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전년도 1만8천297건에 비해 2%가 증가한 것이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0.9%와 3.4%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토요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82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44% 급증했으며,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7.6%를 차지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토요일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35명으로, 전년(11명)에 비해 218%나 증가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196명에서 지난해 209명으로 6.6%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는 3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지역 노인 인구가 전년 40만5천828명에서 지난해 43만6천208명으로 7.4% 증가한데다 노인의 활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36.7%가 줄었다.

계절별로는 행락철인 9~11월에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대 110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전년에 비해 23.6% 증가했다.

지역별로 강진(50%)·화순(41.2%)·해남(38.9%)·구례(36.4%)의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반면, 광주 동부(216.7%)·광주 남부(150%)·목포(81%)·담양(64.7%)·보성(57.1%)은 크게 늘었다.

전남청 경비교통과 우형호 안전계장은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도 바뀌고 있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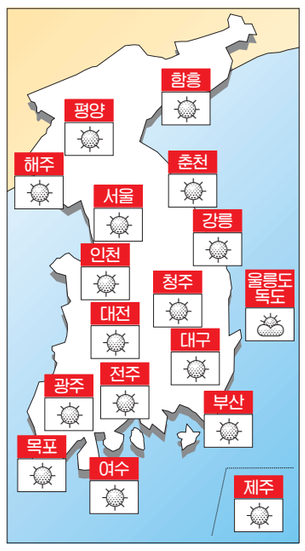
산책하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조금 끼겠다.

1월 18일 (음 11월 30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0~7℃
목 포	구름조금	0~6℃
여 수	구름조금	1~7℃
완 도	구름조금	0~7℃
구 례	구름조금	-2~7℃
해 남	구름조금	-3~7℃
장 흥	구름조금	-3~7℃
고 흥	구름조금	-2~8℃
순 천	구름조금	-2~8℃
영 광	구름조금	-1~6℃
진 도	구름조금	-1~6℃
전 주	구름조금	-2~6℃
남 원	구름조금	-5~7℃
정 읍	구름조금	-2~6℃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00:49 13:59 썰물 06:32 19:28
여 수 밀물 08:57 20:55 썰물 02:15 15:05

▲해뜸 07:40 ▲해짐 17:46 ▲달뜸 07:03 ▲달짐 16: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 씨						
최저/최고	-2/7	1/6	0/6	-2/7	-2/7	-1/7

'석궁 테러' 前 교수 구속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청구된 성균관대 전(前) 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 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이라 살인미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역대 광주·전남 관련 법정 난동·테러 사건은

재판을 둘러싸고 광주·전남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정 난동이나 테러가 있었을까?

지난 1989년 6월 조선대 학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에 난입, 화염병을 마구 던져 법원과 광주지검 유리창 200여 장을 부쉈다. 이들은 지법 현관 안까지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 호송버스를 망가뜨렸으며, 청사 경비를 맡고 있던 전경과 학생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당시 이철규 군 사인(死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난 1991년 5월 광주시 망월동 옛 묘지에 묻힌 강경대군 치사 사건 공판이 열렸을 때는 유족들이 격렬한 항의소동을 벌여 재판이 1시간30분가량 중단됐다. 유족들은 피고 측 변호인단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경들을 옹호하는 변론을 하자 변호인석으로 뛰어들어 마이크·의자·수사기록 등을 던졌다.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지만, 유족들의 항의는 쉬이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2월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는 강도혐의로 수감 중이던 재소자 3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들은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이 포승과 수갑을 풀어주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빼앗아 서울로 도주했다. 이들의 탈주극은 12일 동안 계속됐으며, 이후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의 몸수색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故 이철규 사건 지법에 화염병 투척·유리창 박살

故 강경대 사건 재판중 마이크·의자 등 던져 휴정

3인조강도사건 대기실서 교도관 찌른 후 탈주극

17일 오후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신춘문예 당선자 정재영(시), 오윤주(소설), 박월선(동화)씨,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 주원규씨, 송은일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회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문학상 시상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10집 출판기념회도

200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와 제2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 시상식이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07년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자 오윤주(34)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정재영(55)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박월선(38)씨에게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지난해 제정된 광주일보 문학상의 두 번째 당선자인 소설가 주원규(32)씨에게도 상패와 창작지원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시상식 뒤엔,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문인들의 모임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회원들의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0집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은 축사에서 "다른 신문사에서는 보기 힘든 신춘문학회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며 "신춘문예를 통해 당선된 문인들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쳐 우리나라 문학의 큰 획을 긋는 작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교생들 직업 선택때 88% "부모 반대 무시"

온라인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은 최근 전국 중·고교생 52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직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9%가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선호 직업을 묻는 질문에 12.3%가 교사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무원(8.3%), 회사원(5.8%), 연예인(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하겠느냐"고 묻자 중학생의 78.8%가 '예'라고 답변했고 고교생은 무려 87.6%가 독자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연합뉴스

공판중심 재판땐 시간 2~4배 걸려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재판할 경우 일반 재판보다 재판시간이 2~4배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검 오현철 공판부 검사는 17일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검사에 따르면 자백사건의 경우 종전의 10분에서 30~40분으로, 부인(不認)사건의 경우 종전 30분~1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검사의 피고인 신문 시간도 종래 자백사건의 경우 1~2분에서 15~20분으로 크게 증가했고, 부인사건도 30분에서 1시간 가량, 중요사건의 경우 2~4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검사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간이신속 절차와 함께 혐의를 시인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모두 509건의 사건을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재판해 같은 기간 전체사건(5천258건)의 9.68%를 차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달린다

3월부터 20여 코스 운영

오는 3월부터 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도내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지 순환버스'가 운영된다.

전남도는 오는 3월부터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관광지 등에 20대의 고급형 관광버스를 배치해 각 시·군 시티투어와 연계해 20여 개 코스로 관광지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7일 금호산업㈜을 사업 1순위 업체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속철도(KTX) 개통 등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도는 또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광주역과 광주공항 등에서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순환버스 이용객들에게는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일정에 따라 1만~6만원의'전남 관광카드'로 관광지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는 출발지에서 살 수 있고 코스에 따라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

-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 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민법및특별법, 부동산공법, 중개법령및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2007년 1월 3일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시설개론, 회계원리, 주택관계법규, 주택관리실무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2007년 1월 중순 (19:00 ~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취득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설비	1. 디지털전자회로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전송개론 4. 정보통신시스템 5. 전자계산기일반 및 설비기준 취득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훈련수강신청서작성 ▶훈련기관에 제출 ▶수강

시내버스 노선
■도청,오환은행:1, 2, 5, 8, 9,15,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전남여고 앞:3, 11, 27, 38, 55, 111, 118
■예술의 거리입구:2, 6, 11, 25, 28, 30,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 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內)
☎ 224-4560, 232-1088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홀짝수 주야간반 수시 접수중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0000여명 모집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800여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공무원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기술직
올교정직특채 800여명 2007년 상반기
-한국슈퍼파워를- 올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多걸린다!
한빛공무원학원 개강▶1월 15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채원장 직접시술관리

심는가발 탄생!!
심는 가발이란 인체 두피에서 모발이 한가닥 한가닥 자란 것처럼 보이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 합니다. (올백도 OK)따라서 가발머리도 스포츠형으로 맞춤이 가능합니다
• 1997년 CAT 블란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채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 30년 경력인 이용사가 직접착용시술 컷트·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시내·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 올백스타일, 취침, 수영, 사우나, 축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전남지역 지점모집
목포, 순천, 여수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최저가 30만원~※여성무모(無毛)전화 한통화로OK!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료전화 080-323-5858
E-mail:daesangabal.co.kr
대산남녀프리모가발맞춤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국제호텔 뒤(보훈병원 입구)
대표전화 : 062-672-4622~3, 673-5858
원장 이 수 채 011-607-5330
구 보훈병원 남구청 대산가발 국제호텔